

2007 IHF 총회 유치 의의와 기대 효과



글·김 광 태 |
대한병원협회 회장

오는 2007년 제35차 IHF 총회 개최국으로 마침내 한국이 결정된 것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일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IHF 총회, 한국 의료사 기념비적 事件 으로 기록될것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계 올림픽인 IHF(국제병원연맹, 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을 거듭으로써 지식영 선생의 종두법 실시로부터 비롯된 우리나라 현대의학 120여년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됨은 물론

한국의료를 名實相符(명실상부)하게 국제수준(Global Standard)으로 끌어 올려 당당히 선진 각국과 경쟁할 토대를 마련할 전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국제병원연맹(IHF)은 비정치적 국제 병원기구로 지난 31년 창설되어 현재 120여개국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포함한 21개국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IHF 총회 및 학술대회는 세계 보건 및 의학분야의 최신 정보교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빅 이벤트로서 2년마다 개최된다.

대한병원협회는 66년 8월 IHF 정회원으로 가입한데 이어 아시아병원연맹(AHF) 창립 이사국으로 참여하여 81, 94년 두차례에 걸쳐 AHF 회장국을 맡았으며 국제병원연맹 지역회의(85년)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역량을 쌓아왔는데 이같은 점이 2007 총회 유치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IHF 총회 개최 확정은 우리나라 의료사의 기념비적인 일로서 대한병원협회가 세계 각국과의 유대 강화 및 정보 교환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에 뜻을 두고 2년에 걸쳐 적극 유치 활동을 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은 근래들어 국가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음) 및 의료계의 세계 당뇨병학술대회 개최가 무산된 이후 나온 낭보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며, 개최국 확정시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이 전혀 혼란없이 안정되고 있는데 대해 국제적으로 변함없이 신뢰를 받은 반증으로 판단된다.

병원산업 발전 앞당길 전기로

2007 서울 IHF 총회 유치는 이처럼 국위선양 뿐 아니라 코앞에 닥친 WTO DDA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국제화시대에서의 대한병원협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 의료기기, IT, BT, NT 등 보건의료

관련산업의 발전상을 국제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국 병원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수출을 통한 교역증대로 관련산업 발전은 물론 외화획득까지 가져다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병원인의 제전인 총회를 계기로 각국 병원간 정보교환과 이슈공유를 통해 병원산업 및 보건의료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7 대회는 명실공히 21세기 최첨단 의료정보기술 등 병원관련산업 성장 발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자못 기대가 크다.

2007. 11. 5~9 COEX에서 열릴 예정인 IHF 총회는 병원협회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데 전체적으로 3~4천명 이상의 병원인 및 관련산업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 병원관련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은 국내 의료계가 IHF 총회 유치를 계기로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2007 IHF 총회는 한국의 병원산업, 임상의학, 발전상은 물론 관광까지 연계되는 수준 높고 유익한 총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